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장진성(뉴포커스 대표)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6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제1장 주민생활

- | | |
|--------------------------|----|
| 1. 북한의 동 인민반 제도 | 6 |
| 2. 공급제도를 통해 본 북한의 불평등 구조 | 11 |
| 3. 생활 곳곳에 침투된 신분차별 | 19 |
| 4. 연애와 음주도 마음 놓고 못하는 주민들 | 27 |
| 5. 지상으로 나올 수 없는 북한의 지하철 | 32 |

제2장 사회현상


- | | |
|------------------------|----|
| 1. 시장과 전쟁 중인 북한 | 38 |
| 2. 북한의 '용감한 녀석들' | 46 |
| 3. 주민으로부터의 변화 조짐 | 55 |
| 4. 북한의 종교는 수령주의 | 65 |
| 5. 북한의 폐쇄정치를 뚫는 과학의 발전 | 72 |

제3장 권력집단

- | | |
|---------------------------|----|
| 1. 차번호를 통해 본 권력기관 서열 | 80 |
| 2. 김정은의 스킨십 정치 | 83 |
| 3. 김정일의 '비준정치' 를 따라하는 김정은 | 86 |
| 4. 김정은 세습의 3대 악재 | 92 |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36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제1장

주민생활

1. 북한의 등 인민반 제도
2. 공급제도를 통해 본 북한의 불평등 구조
3. 생활 곳곳에 침투된 신분차별
4. 연애와 음주도 마음 놓고 못하는 주민들
5. 지상으로 나올 수 없는 북한의 지하철

1

북한의 동 인민반 제도



외부세계는 주민들에게 군대식 전체주의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병영식 사회라고 한다. 그 대표적 병영식 구조가 바로 동 인민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동 인민반 제도는 주민들의 동 생활 편의보다 감시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기관 이탈 세력이 늘어나면서 직장을 통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 정권은 동 인민반 제도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민통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동 인민반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즉,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민반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세대주 반장은 남편들만을 별도로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기관아파트

지방은 덜하지만 평양시 같은 경우 세대주 반장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달리 평양은 중앙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한 북한에서는 아파트도 법적으로 볼 때 엄연히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실적과 충성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게만 공급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양시 같은 경우 많은 주민들이 기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거주 환경에 맞는 통제를 위해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은 세대주 반장 제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발단은 중앙 당 간부가 퇴근 후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 김일성은 “간부들은 출근해서만 간부가 아니라 퇴근해서도 간부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직장생활의 연장선에서 동 인민반 제도 안에도 남편들의 생활을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세대주 반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정일이 당 조직비서가 된 후에는 중앙당 아파트에만 적용했던 세대주 반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민반장은 해당 동에 거주한 전체 주민들을 상대하지만 세대주 반장은 남편들만을 상대로 인민반 회의, 인민반 동원, 인민반 강연을 주최한다. 거주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모든 주민들은 인민반 생활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권에

의해 퇴근 후 일상생활의 통제까지 강요당하는 셈이다.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

인민반장이나 세대주 반장의 권한은 단순히 위의 지시를 전달하는 ‘인민반 회의 소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행정체계는 시·구역·동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단계마다 세 개의 감시기관 소속원, 즉 당 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주재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주간 단위로 담당지역 거주자들의 이상 동향을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을 통해 파악하여 윗선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거주자들이 인민반장이나 세대주반장과의 관계가 안 좋을 경우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당 간부 문건에는 간부 등용 대상자의 사상동향, 가족생활, 심지어 성격문제에 이르기까지를 거주 지역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이 평가하고 서명하는 난이 있다. 아무리 충성심이 인정되고 재능이 뛰어나도 동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이 동 인민반 생활을 근거로 시비를 걸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은 당간부와 직원들에게 “간부 후보자의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거주 인민반장의 평가 부분을 많이 참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거주자들에 대한 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민반 회의는 물론 사회건설이나 군중행사,

각종 명목의 지원을 요구하는 인민반 동원에 잘 참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혁명화 원칙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파트 경비를 통해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키는지, 자기 월급의 형평성에 맞는 적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지 등 다양한 감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인민반장은 동사무소에서 임명하는데 주로 충성심과 신분이 좋은 집안의 여성 중에서 선택된다. 세대주 반장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품위문제를 고려하여 지위가 좀 높은 사람으로 임명된다. 특히 중앙당 간부들이 모여 사는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같은 경우 인민반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외부인의 출입과 중앙당 간부들이 몇 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를 기록하여 중앙당 담당 창광보안소에 매일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감시가 가능한 것은 북한의 모든 아파트들에는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 단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영향으로 동 인민반 제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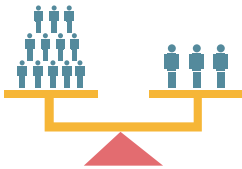
중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특수기관들을 제외한 다른 기관 사람들은 동 인민반 제도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관아파트를 기피하고 있다. 가정으로의 진정한 퇴근을 위해서인 것이다. 이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조직 연대감보다 개인 연대감을 더 중시하게 된 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국가가 배급을

주지 못하자 시장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충성 경쟁보다 개인들의 결속력이 실생활에서 더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인민반장들과 주민들과의 사적 결탁관계는 위의 지시를 점점 무력화시켰고, 진정한 사생활 개념의 동 인민반이라는 새로운 결집력을 만들었다. 심지어 담당 거주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동 보위원이나 보안원, 당일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듯 시장의 영향은 북한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말단 감시체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다.

2

공급제도를 통해 본 북한의 불평등 구조



배급과 공급의 차별화로 특권사회 구축

북한의 3대 세습은 김씨 일가만의 3대 세습이 아니다. 김씨 일가에게 충성하는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소수의 권력층도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신분차별화를 위한 공급우대 제도가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 신분의 등급은 공급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제도는 1일 공급, 3일 공급, 주 공급, 월 공급으로 나누어진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이후 일반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월 공급은 사실상 완전히 실종됐고 중간급 간부용인 주 공급은 기관 자체로 해결하도록 했지만 특권층 공급제도는 오히려 더 보강됐다.

북한의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특권층에 대한 공급제도에는

1일 공급과 3일 공급이 있다. 1일 공급이란 가족 수에 맞게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를 정하고 쌀·육류·수산물·과일·기름 등 식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들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1일 공급 담당부서가 매일 아침 6시마다 냉동차로 리스트에 올라있는 가족들을 찾아 신선한 식품들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일 공급 대상은 당 중앙 비서들과 부장들(당조직부 부부장들), 내각 총리, 군단장 이상 군 고위급과 각 도당 책임비서들, 그 외 김정은 근접 경호나 신변 및 업무 관련자들이다. 3일 공급 대상은 당 중앙 부부장들과 과장들, 내각 부총리, 각 성의 장관들이다. 그 외 김일성과 연고가 있는 인사들, 대남공작부서 가족들, 남한에서 보낸 비전향장기수들도 3일 공급 대상이다. 1일 공급과 달리 3일 공급은 해당 담당지역 내 별도 공급소를 설치하고 수·토요일, 주 2회 배급을 준다.

이를 위해 특산물이 나오는 전국의 각 지역마다 중앙당 재정경리부가 농장·목장·어장 운영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보낸 소도 평안북도에 있는 중앙당 젖소목장으로 그대로 옮겨졌다. 당시 소를 싣고 갔던 새 트럭의 대부분은 중국에 역수출 되어 중국군이 쓰던 중고포차와 맞바꿨다고 하고 몇 대는 현재 평양시 김치공장 트럭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 아무리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어도 이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농촌들엔 흉작이 없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1등급 생산품들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전체 통계에서 제외된다.

쇼핑 특혜도 공급제도에 속해

공급우대 차원에서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1일 공급, 3일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중앙당 상점을 운영해왔다. 중앙당 상점은 김정일이 당 조직지도부에서 세습정치를 시작하며 당간부들에 대한 격려 명분으로 신설하였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조선노동당 본청사에는 1호 접수와 2호 접수로 정문이 구분되어 있다. 1호 접수는 조선노동당 본부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이고 2호 접수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접수받는 창구이다. 중앙당 상점은 1호 접수를 통과하여 김정일 파티 건물인 목란관(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 옆에 위치해 있다. 신설 당시 김정일의 당 조직지도부 유일지도 권한 차원에서 사회주의 동구권 상품들을 주로 판매해왔다.

이후 김정일 비자금 38호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의 유명 상품들도 쌓이게 됐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이념대립을 환율에 적응하여 1달러 대 1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매달 자기 월급의 절반만큼 외국 상품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면 일정금액만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규모를 더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일의 선물 차원에서 중앙당 외 다른 기관장들도 외국상품을 거의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한국의 상품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국영상점이나 음식점들에서 국

정가격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예비표’의 원조이다. 이를 계기로 중앙당 상점의 존재가 일반에 알려졌고, 보고를 받은 김일성은 사회주의 신념이 투철해야 할 간부들부터가 자본주의 상품에 세뇌되었다며 당장 중앙당 상점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김정일은 외국인들을 위한 외화상점 설립이 필요하다고 김일성에게 거짓보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 최초로 외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락원백화점’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사실상 중앙당 상점 대체용이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김정일은 북한 기득권층에 ‘외화와바꾼 돈표’를 선물하는 방법으로 상품특혜를 주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다시 중앙당 상점의 문을 열도록 했다. 대신 중앙당 상점처럼 월급의 절반이 아니라 일정한 구매권으로 사도록 제한했다. 김정일이 이렇듯 간부들에게 쇼핑특혜를 주는 이유는 김정일의 선심성도 있지만 중앙당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 방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병원도 인민병원과 간부병원이 따로 있어

충성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급의 차별화로 신분사회를 추구하는 북한에서 충성계층에 대한 다양한 특혜들은 끝이 없다. 보건관리제도도 그 중 한 사례이다. 북한은 체제우월성의 근거로 무상의료를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내각에는 보건1국과 보건2국이 있는데 1국

은 봉화진료소와 남산정부진료소를, 2국은 기타 병원들을 담당한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위치한 봉화진료소는 김정일과 친인척들, 1일 공급 대상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이다. 당 중앙 부장들과 비서들, 내각총리, 각 도당책임비서들, 군단장 이상 군고 위급들과 그 가족들이 치료대상이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 3동에 위치한 남산정부진료소는 한 단계 아래 급으로서 중앙당 부부장들과 각 사회단체장들, 내각 각 상(장관)들, 중앙당 과장들, 김정일의 특별 신임을 받는 예술인, 스포츠맨, 학자, 교수들이 치료대상이다.

봉화진료소와 달리 남산정부진료소의 치료대상은 본인만 해당되고 그 가족들은 제외된다.(중앙당 부부장 가족들은 포함) 가족들을 위해서 김만유병원과 평양의학대학 병원에 간부치료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군도 인민무력부촌이라고 하는 평양시 서성구역 석촌동에 군인치료를 전담하는 ‘어은병원’이 따로 있다. 보건1국에 속한 간부병원들에는 고가의 수입약들과 국제사회의 지원품들이 쌓여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치료받는 병원들에는 약은 물론 최소한의 의료품인 약솜도 없어 휴지를 사용하는 형편이다.

북한의 계층별 교육특혜

북한에서 대학은 신분차별이 시작되는 갈림길이기도 하다. 북한 중앙당 조직부 내부 인사등용 원칙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 우선조건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김정일이 남산중학교를 걸쳐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신격화 차원에서 그 코스를 그대로 밟은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는 입학만 해도 미래가 약속되는 간부학부이기도 하였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특권층 자녀들이 유학을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이다. 사회주의 동구권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유학은 곧 특권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해체 과정을 지켜본 체험자들이었던 당시 유학생들을 국가보위부가 내부적으로 불순계층(북한에서는 주민구성을 충성계층, 동요계층, 불순계층으로 분류)으로 규정하면서 유학은 마치 신분추락처럼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시장의 확대와 함께 주민들의 가치관이 충성에서 돈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부유층의 자녀교육 심리도 크게 변화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많이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 우선순위도 달라졌다. 그 우선순위는 입학시험 결과는 상관없이 입학을 조건으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현금액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은 미화 1,200불이었던 반면 평양외국어대학은 3,000~3,500불이었다. 외국어대학을 졸업하면 대외업무나 최소한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그러면 달러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상업대학의 봉사학부도 중국에 접대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김일성종합대학보다 비싸게 거래됐던 대학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컴퓨터학부), 김형직사범대학·김철주사범대학(외국어학부), 평양의학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 평양미술대학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이렇게 평가절하된 것은 북한 최고의 정치일꾼 양성대학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정치행사 참석을 요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준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강했기 때문이다. 이전 같으면 출세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남한의 드라마·영화를 통해 한류바람이 불면서부터 남한에서는 의사가 가장 잘 산다는 소문이 나면서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하려는 열망들이 높아졌다. 또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예술교류가 가능한 평양음악무용대학과 평양연극대학, 평양미술대학도 보통 2,000불을 줘야 입학할 수 있을 만큼 인기가 크게 올랐다. 남한의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북한 전문학교들 중 가장 비싼 학교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룡라1동에 위치한 평양통계전문학교이다. 북한에는 부기전문 양성교육이 원산경제대학과 통계전문학교에만 있는데 여기 졸업장을 쥐면 무역회사들에 재정부기

로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의 전문양성기관으로서 당 간부학교는 김일성고급당학교, 행정 간부학교는 인민경제대학이 있다. 이 학교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간부로 임명하기 위한 재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인사는 당 조직지도부 양성담당 간부4과에서 전담한다. 외무성과 대외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국제관계대학은 2000년 폐쇄되어 인민경제대학 국제학과로 축소·편입됐다. 각 지방마다 있는 공산대학들은 중앙당에서 관리 운영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와 마찬가지로 도당 자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방당 산하 재교육기관이다.

3

생활 곳곳에 침투된 신분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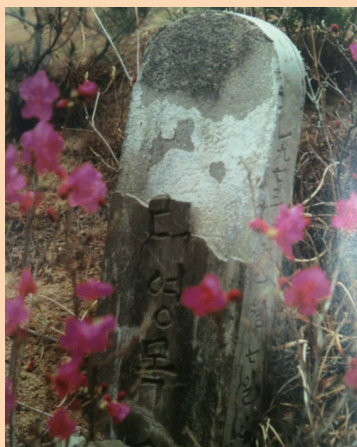
묘비병도 마음대로 새길 수 없는 북한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재로 사라지지만, 묘비는 무덤 곁을 지키면서 그의 경력이나 일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더불어 묘비명에서는 긴 일생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글귀를 적어 자신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 나타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개인 묘비에 글을 새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묘비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문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두 명 이상이 볼 수 있는 글들은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묘비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죽어서까지도 병어리가 되어야만 하는 북한 주민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간부들은 어떨까?

권력층은 ‘충신’이라는 명목 하에 대성산 기슭에 위치한 ‘혁명 열사릉’에 묻힌다. 일단 이름과 함께 생전에 자신이 가졌던 직위가 기입되고 출생일과 사망일이 적혀 있다. 그렇지만 간부조차도 묘비에 기입할 수 있는 글자는 여기까지다.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김정일 측근의 묘비에서도 행적을 기록한 묘비명은 쉽게 관찰해 볼 수 없다.

간혹 행적까지 새겨진 묘비명들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남긴 말이 아닌 당에서 지정해 준 문구를 새기도록 되어있다. 오히려 일반 주민들보다 제약이 더 큰 셈인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이다. 죽음조차도 공개매체로써 체제선전에 이용하는 북한의 의도를 읽



▲ 일반 주민의 묘에는 이름 외에 글을 새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간부들의 묘비에도 기본정보만 적혀있을 뿐 묘비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을 수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우물쭈물하다 내 이럴줄 알았지-이 굉장히 화제가 된 바 있다. 묘비명에 새겨진 문구만 보면 실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텅 없는 인간사를 한마디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그의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묘비명이란 인간이 죽으며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글귀마저 조작되거나, 강제로 새겨진다면 죽은 자의 일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은 개인의 역사를 너무도 쉽게 왜곡한다.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죽었어도 묘비명에는 ‘김정일 장군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건설에 이 한 몸 바치다’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며 한마디라도 남기고 싶은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개인의 일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조작되는 곳이 북한이다.

북한은 인사법에도 신분차별이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11년 11월 “오늘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전통적인 조선절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큰절은 45도, 평절은 15도 정도로 허리를 굽혀 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며 “조선절은 서로 손을 쥐거나 얼굴을 맞대는 법도 없으므로 위생적으로도 좋은 인사법이다”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서양식

인사인 악수는 북한의 전통인사법이 아니므로 머리를 숙이는 인사법이 옳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인사가 한국과 다른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인사하면 자신이 상대방보다 신분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분사회인 북한에서 인사는 초면의 관계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서로 신분이 확인될 만큼 잘 알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소개가 있을 때에만 나누는 예법으로 알고 있다. 특히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간부이면 노인도 먼저 인사를 해야 할 만큼 철저히 상하관계를 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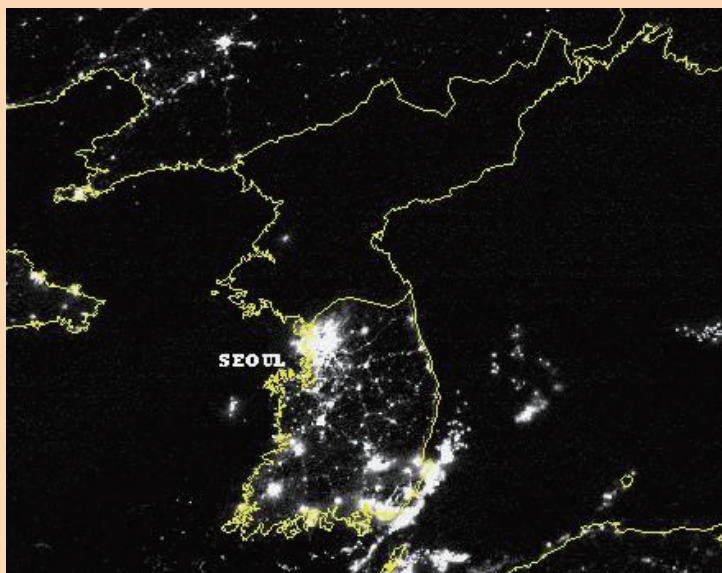
그런데 인사의 깊이에도 ‘수령 것’, ‘인민 것’이 따로 있다.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은 김정일과 그 가족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만약 일반 주민들이 간부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면 오히려 그 간부가 당황해 한다. 개인우상화로 비쳐져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할 수 있어서이다. 그만큼 허리를 깊이 숙이는 것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나 할 수 있는 충성의 인사를 뜻한다.

이것은 두 번의 정상회담 과정에 한국 대통령에게 했던 인사 예법에서도 잘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시 대통령 부부 내외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던 북한의 소년단 아이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인사할 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당시 통일전선부 부부

장이 마중 나왔지만 머리를 전혀 숙이지 않고 단지 ‘악수’만을 한 바 있다. 악수는 서양식 인사법이며 손을 잡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했던 북한이었다. 북한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예의를 알게 될 이성의 새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가정집 불빛에도 계층의 순서가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북한 전력난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남과 북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누리꾼들의 흥미를 끌었는데, 독도마저 빛이 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평양 외에는 별다른 불빛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의 불빛사진

북한은 아파트 창밖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에서도 계층의 순서를 엿볼 수 있다. 심지어는 전력난으로 인한 똑같은 정전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기가 끊어질 줄 모르는 북한 고위층이나 간부 아파트들에선 이렇게 밝은 조명을 과시용으로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그 지나긴 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내고 있는 것일까?

전구



물론 일반 가정집들에도 전구는 있지만 들어오는 전압이 간부아파트들과 다르게 약해서 필라멘트에만 실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지방 도시 같은 경우 수력발전에 의존하는데 강수량이 적은 가뭄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겨울에는 거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촛불



한국에서 촛불은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위해 쓰인다. 반면 북한의 촛불은 일상의 조명이다. 촛불이 없으면 밤을 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초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가정만이 사용할 수 있다. 도시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촛불을 많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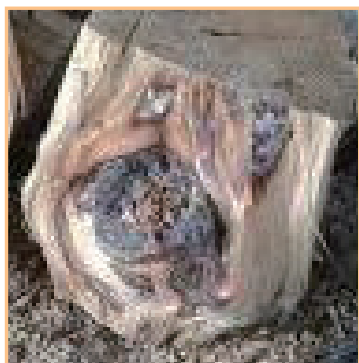
등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북한에는 등잔불을 사용하는 집들이 많다. 삼겹살을 구워먹다 보면 기름이 나오기 시작할 때 불길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북한의 등잔불은 동식물의

기름이나 식용유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다.

소나무의 옹이



북한에서 가장 최하층에 속하는 가정들에선 ‘옹이 불’을 많이 켜다. 옹이는 나무의 가지에 박힌 그루터기, 즉 밑둥이다. 나무가 옆으로 가지를 뻗어갈 때 그 가지를 버티기 위해 생긴 상처가 굳은

것을 말한다. 옹이는 불을 붙이면 굉장히 잘 탄다. 하지만 그 음이 많이 나온다. 특히 실내에서 사용하다가 질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에서는 구하기 쉬운 재료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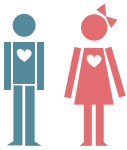
달빛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의 불빛이다. 달빛에 의지해서 밤을 보내고 있는 어둠의 사람들도 있다.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꽃제비 등 북한의 최하층 주민들의 삶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빛인 것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밝은 세상에 살고 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어두운 밤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밤이 낮보다 더 좋았다고 말하는 탈북자도 있다. 이유를 물어보니 노동에 시달리는 낮보다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겐 너무도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들의 소원은 단지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그 아침일 것이다.

4

연애와 음주도
마음 놓고 못하는 주민들

북한에는 화이트데이가 없다.

남한에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와 같은 연인들만의 기념일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연인들 사이에 애정의 세월만 있지 그 중간에 어떤 다른 특별한 날은 없다. 김씨 일가 신격화 외의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북한에서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그들만의 어떤 의미를 설정하고 만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연인들 사이 숫자개념의 기념일은 챙긴다. 남한 드라마의 영향도 있지만 10돌, 20돌, 50돌은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국가기념일들을 크게 여기는 체제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대로 개인 간 의미를 둔 특별한 날이란 있을 수가 없다. 김씨 일가 신격화 외 개인주의나 개인 우상

화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가난한 환경적 요인도 있다.

북한에서 결혼식은 이렇게 한다.

북한의 가족법에 따르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이 늦는 이유는 남자의 군 제대 나이가 26~27세인데다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보람차게 일한 다음 결혼할 것을 사회적 기풍으로 장려하기 때문이다. 여성들도 ‘당에서 공부시켜준 데 대한 보답으로 사회에 나와 4~5년 정도는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일단 배우자가 결정되면, 남녀가 각 해당 직장, 당책임자 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책임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데 결혼 전에는 청



▲ 결혼식 후 사진을 찍는 북한의 신혼부부

년동맹 소속이지만 결혼 후에는 당원이 아닌 이상 자동적으로 직업동맹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양가부모의 상견례에서는 주로 간단한 예물교환을 하고 약혼날짜를 잡는다. 생계가 어려운 북한 노동자와 농민들은 최소한의 상차림 음식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장마당에서 돈을 조금 주고 빌려다가 상을 차려 사진을 찍은 뒤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은 통상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택해 자기 집에서 한다. 그래도 명색이 잔칫상이라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 있다면 삶은 닭에다가 남한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소품들을 하나씩 물려주는 것이다. 암탉의 경우엔 대추나 꽃을 물려주고, 수탉에는 담배 또는 성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빨간 고추를 물려준다. 반면 당간부들의 결혼식은 규모가 크다. 결혼식은 그 사람의 위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차대하게 여긴다. 예식장을 방문한 하객의 수로 위신을 입증하다 보니 심지어 트럭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 벤츠냐, BMW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바퀴가 줄지어 서 있느냐이다. 그래서 차들이 많이 올수록 멋있는 결혼식이 된다.

김정일의 축하선물을 받을 만큼의 특권층 자녀들에 한해서는 호텔이나 기관의 특각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시계를 남자의 권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재산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계는 빠질 수 없는 결혼예물이 된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태어난 4월 15일, 2월 16일에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

다. 민족의 명절이지 개인의 명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결혼식에서 남한과 대비되는 또 다른 점은 주례가 없고 신랑이 다니는 직장의 당 비서나 고위층 간부가 와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게 관례라는 점이다. 부케는 따로 없는데, 한 간부가 결혼식에 부케를 사용했다가 자본주의 문화라고 호되게 비판을 당한 사례가 있는 후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부조는 간부들의 경우에는 달리로 하며 보통시민은 결혼식에 쌀, 술, 쌀 등 최소한의 먹거리로 대신한다.

웨딩촬영은 형편상 대부분 생략되지만 하게 된다면 반드시 김 일성 동상 앞에서 찍는다. 이를 강제하진 않지만 통상적인 사회 윤리로 요구된다. 북한에선 신혼여행이란 말조차 없다.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갈 곳도 없거니와 결혼했다고 며칠씩 놀면 당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것이다.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음주발언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어 직장에서 징계 및 해직까지 당한 사례들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음주에 관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북한에는 “긴 목보다 짧은 혀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북한에선 음주운전보다 음주발언으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중앙기관 국장급 간부가 술에 취해 “장군님은 쫓기밥

(주먹밥이란 뜻), 우리는 쫄면안주”라고 횡설수설했다가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고, 취중에 흥분하여 “중국 같은 큰 나라도 개혁개방을 하는데 쪼꼬만 나라에 뭐가 그리 지킬 게 많아서 이러냐”며 혼잣말로 푸념한 것이 조국에 대한 반체제성 발언이라 하여 20년간 수감된 학자도 있다. 그리고 한 취객이 술김에 “내 친어머니는 그렇지 않는데 노동당 양어머니는 왜 밤낮 우릴 못살게 구냐”고 나름 우스개소리를 했다가 역시 끌려간 경우도 있다.(참고로 북한에서는 노동당을 ‘어머니’라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취중에 한 말이라도 취중진담으로 엄격히 다룬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탈북자들은 “아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수감자들 중 20% 정도는 술 먹고 말실수로 들어온 사람들일 것이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꼭 한 번쯤은 나오는 말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한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한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발언 내용에 동조하거나 긍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똑같은 형벌을 주어 취중 피해는 더 심하다.

신기한 것은 북한엔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북한 고위층들 대부분이 음주운전 때문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은 없고 체제비판의 음주발언에는 엄격한 형벌을 가하는 세계 유일의 ‘음주발언 탄압 국가’이다.

5

지상으로 나올 수 없는 북한의 지하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아직도 개혁개방의 밝은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대표적 증거가 있다. 바로 선로에 따라서 ‘지상’과 ‘지하’를 오고가는 남한의 지하철과 달리 평양 지하철은 오로지



▲ 평양의 지하철역 입구

지하로만 다닌다는 것이다. 평양 지하철은 소비에트 연방의 기술지원을 받아 ‘제1차 7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61년에 착공되어 1973년 9월 남북노선인 천리마선(부흥역-붉은별역)이 완공되었다.

그 뒤 1978년 9월에는 제2단계 공사로 동서노선인 혁신선(광복역-락원역)이 완공되었고, 1987년 9월에는 봉화역에서 부흥역간 연장공사가 완공되었다. 지하철 입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장의 사진에서와 같이 지하철 출입구는 지하철의 약자인 ‘지’라는 표시가 있어 출입구 이용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북한의 지하철은 가로·세로 2개 노선으로 평양의 중심부를 가로지른다. 특이한 점은 광명역은 현재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 평양 지하철 광명역 플랫폼

지하철이 멈춰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린다. 이유는 광명역 근처에 금수산기념궁전을 비롯한 김씨 일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보안 시설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독재자의 두려움'일 수 있다.

아래 사진은 북한 지하철에 있는 안내판이다. 남한 지하철에서는 요즘 '스마트TV'를 곳곳마다 배치하고 터치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는 이에 못 미치지만 평양 나름대로의 '스마트 안내판'을 마련해 놓았다. 사진과 같이 원하는 목적지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 평양시 지하철 안내판

다음은 단순히 지하철 노선도가 아니라 평양시 인공위성 사진 위에 2개의 노선도를 표시해 보았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교통수단보다도 체제방어 차원에서 대피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개방과 개혁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정치·사회·경제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북한은 언제쯤 ‘지하’에서 나와 ‘자유와 개방의 민주주의 햇살’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겐 지금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이 필요하다.



▲ 평양시 위성사진 위에 표시한 지하철 노선도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36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제2장

사회현상

1. 시장과 전쟁 중인 북한
2. 북한의 '용감한 녀석들'
3. 주민으로부터의 변화 조짐
4. 북한의 종교는 수령주의
5. 북한의 폐쇄정치를 뚫는 과학의 발전



북한 정권이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는 국영상점 외의 시장 없이 생산과 공급의 질서만 있었다. 김일성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농민들에게만 허락했던 원시적인 농민시장이 고작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배급제 붕괴와 함께 대량 아사가 발생하자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정권은 초기에 이 농민시장을 통해 쌀이나 간장 같은 필수적 식품 판매만을 허용하려 했었다. 배급능력을 상실한 북한 정권으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시장 문을 열었더니 쌀을 파는 사람보다 쌀을 사기 위해 가정에서 쓰는 물건들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결국 통제할 틈도 없이 시장은 생존을 넘어 상업화 방향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들은 해당 직

장들에 소속되어 시장을 그냥 쳐다보기만 할 때였다. 배급 붕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체제명분을 스스로 잃는다고 생각한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에게 자력갱생만 강조할 뿐 배급에 관해서는 그 어떤 반성이나 양해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가 계속 배급을 주지 못하자 굶어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대량아사에 대량 직장이탈이라는 진퇴양난을 겪게 된 북한 정권은 부득불 시장의 통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 의한 북한의 변화

북한 정권이 1996년 초 기관 자체로 별어서 소속 직원들에게 식량공급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그때부터 북한에는 무역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됐다. 그러나 무역회사들은 많이 만들어졌지만 명칭뿐이었다. 북한의 유일한 외화금고인 김정일 당자금 관리 39호실, 38호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 내각의 무역성 조차도 외국에 '식량동냥'을 가려고 해도 직원들에게 줄 출장자금이 없었다.

북한이 해외에 줄 것은 오직 자원 밖에 없었다. 그래서 석탄, 광물, 목재 등 자원들을 주면 중국 상인들은 대신 쌀을 줬는데 이런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이라도 제대로 가동되게 내버려두었다면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물교환 때문

에 수출 허가는 해주었는데 충성의 외화자금이 들어오지 못한다며 김정일은 1997년 국내 실정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거래의 무역만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북·중무역이 냉각되며 쌀이 들어오지 못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게 됐고, 국가 기관의 신용을 믿고 투자했던 중국 상인들 또한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

그때부터 북한이란 나라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중국 상인들은 모든 거래를 현금화하자고 했고 그래서 북한의 무역은 기관이 아닌 돈 있는 개인들의 활무대가 됐다. 돈만 많으면 과거 경력이 어떻든 권력기관들이 서로 모셔가려 했고 그로 인해 북한 노동당의 인사원칙도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곧 주민들의 체제의존 심리와 가치관도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됐다. 북한과 중국과의 현금거래 무역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북한 내 자본 특권층과 권력 특권층과의 결합관계를 형성하게 한 것이다.

충성만 알던 특권층 자녀들이 돈맛을 알게 된 다음부터 북한은 급속도로 변했다. 권력과 자본이 결합하여 중국 상인들에게서 싸게 받은 각종 물건들을 두 배로 비싸게 북한에 전파시키자 시장은 도매와 소매의 구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보다 활성화 됐다.

북한 시장을 주도하는 권력층

북한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 구조가 아니라 수입 대 소비라

는 불균형 구조이다. 정치만 주체일 뿐 경제는 철저히 외세의존이었다. 그리고 워낙 극빈국가라 시장이 허용된지 1년도 안 되어 곧 소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에 빚지는 간부 자녀들도 속출하면서 심지어는 금전문제로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 사건 후 북한 정권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산재해 있는 무역회사들을 통폐합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품목만 수입·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회사들의 권한을 제한했다.

그러나 북한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김일성의 ‘교시’는 법이었지만 김정일의 ‘말씀’은 그냥 말이라고 했다.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권력기관들이 김정일 유일비준제도를 이용하여 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제의서를 올려 결재를 받으면 그 문건을 법적 근거로 어떤 문제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특권층 자녀들이 운영하는 당과 인민무력부 산하 회사들이 국내 주요 광산과 여장 등 수출생산 기지들과 함께 모든 수입 권한을 독점하고, 내각은 아무 권한도 없게 됐다.

내각이 그렇게 무력해지고 그 결과 계획경제는 붕괴되고 시장만 더 커졌다. 그래서 내각 산하 기관들을 살릴 목적으로 홍성남 내각총리가 김정일에게 제안한 것이 ‘합의제’였다. 합의제란 텅 빈 국영상점과 식당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타 기관에 빌려주어 7:3으로 이윤을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관들이 숨 쉴 여유도 생기고 나아가 개인들이 가격을 주도하는 바깥의 시장을 국영상점 안으로 점차 끌어들이어 통제·관리할 수 있다

는 것이었다. 김정일의 적극적인 지지로 북한은 시장을 폐쇄하고 시장가격보다 조금 싼 공시가격으로 국영상점들의 문을 열었다.

그 길밖에 없다고 오판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영상점과 음식점들을 대어했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이미 ‘비즈니스맨’이 된 특권층 자녀들이 남보다 앞선 정보력으로 강제적인 물가하락에 대비하여 갖고 있던 물건들을 싸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공시가격은 실행 초기에 붕괴되고 말았다. 시장과 국영상점 사이에 물가경쟁까지 벌어지자 김정일은 1년 후 합의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것마저 독재자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상점은 덜하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등 시장화되어 버린 것이다. 또 기관들도 합의제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합의제 폐기는 곧 내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북한 권력층 자녀들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 4과(중앙당 간부들 비리적 발 전담 부서)를 통해 중앙당 비서급 이상 간부 자녀들의 현직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중앙당 비서급 대상 자녀들이 외화벌이 기관에 취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을 축출한다면 북한의 대외무역이 마비가 될 만큼 시장은 이미 그들을 중심으로 권력화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나라에 돈이 없어 돈으로 애국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현재 북한 특권층 자녀들 대부분은 38호실, 대남공작부서들을 비롯한 당, 호위사령부,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등과 같은 권력 기관 소속 회사들에서 활약하고 있다. 북한의 백만장자들인 그들은 당과 군의 주요 회사들에서 사장 또는 간부직에 근무하면서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북한의 시장가격을 조종하고 있으며 심지어 달러의 힘으로 저들의 이권과 관련한 국가정책까지 주무르고 있다. 돈에 환장한 특권층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역을 함께 시작했던 자본 특권층까지 모함하고 숙청하여 회사 이권을 독점하는 등 충성권력가들이 아버지들과 달리 자본권력가들이 됐다.

화폐개혁마저 실패해

배급제가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권력으로도 시장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 정권은 2009년 화폐개혁까지 단행했다. 북한의 의도를 본다면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가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용, 둘째는 시장에 축적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수탈용, 셋째는 시장과 환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본가치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폐쇄용, 넷째는 시장의 자율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용, 다섯째는 주민들의 시장의존 심리를 억제시키기 위한 통제용이었다.

과거 같으면 국가경제유일관리를 보완 및 강화하는 방향에서 화폐교환이 이루어졌겠지만 2009년의 화폐교환은 국가가 시장

에 밀린 생존차원의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7·1조치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시장을 암묵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 목적으로 화폐교환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의 시장인식에 대한 부족과 소극적 대처로 화폐교환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시장화폐가 국가화폐를 한발 앞서 장악했다.

이에 기여한 세력이 다름 아닌 북한의 간부들이었다. 권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던 이 세력은 자기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정권의 시도보다 먼저 화폐교환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값이 오르고 화폐교환 소문이 퍼지면서 물가는 폭등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역사상 최고한도를 설정해 만든 5,000원권 지폐는 그 기회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아래 화폐들은 휴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북한은 화폐교환을 비밀리에 단행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은 우선 독재의 눈으로 시장의 가치만 보고 개인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7·1조치 이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충성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아직도 충성의 가치관에 세뇌된 주민으로 보았고 그 맥락에서 주민들을 함부로 다룬 것이다. 즉 시장의 자본을 빼앗는 것만 생각했지 주민들의 물질가치를 빼앗는데 대한 반발은 계산하지 못한 것이다. 모두에게 다 있는 공통의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

인데 김정일은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빼앗은 것이다. 때문에 화폐교환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반항심을 보다 심화시켰다.

김정일이 오판한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의 수준과 국가의 요구와의 격차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시장의 다양성과 끊임없는 수요에 길들여져 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은 시장을 지향하는 사고와 의식의 수준으로 체질화됐다. 그런데 김정일은 단순하게 화폐를 통한 국가의 요구를 실현하려 했다.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를 버려야 산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들에게 과거보다 더 강력한 전체주의를 강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폐쇄국가의 왕인 김정일은 달러의 세계화를 너무 무시했다. 체제유지에 필요한 외화와 주민들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북한화폐, 이렇게 이중적인 화폐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정일은 달러의 지배력과 상관없이 화폐교환을 통해 북한화폐 가치를 재규정하려고만 하였다. 자체 생산은 전혀 없이 수입에만 의존하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가진 북한에서 과연 그의 의도대로 시장의 완전한 장악이란 불가능했던 것이다. 자립경제를 주장하는 김정일의 폐쇄적 사고와 근시안적 이기주의가 야기한 자멸의 화폐교환이었던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하나는 당과 군에 존속된 배급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시장계층이다. 두 계층의 갈등과 모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2

북한의 ‘용감한 녀석들’



한국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개그콘서트’라는 TV 프로그램에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가 인기다. 보통사람들이 선불리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용기 있게 표현함으로써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 서조차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용감한 녀석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체제에 도전하는 용감한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

유언비어 유포자

북한이 자행한 연평도 포격사건 후 북한에서는 “멍은이 처럼 놀래?”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며 멍청한 짓을 한 사람을 김정

은에 빗대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김정은이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는 북한의 선전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이전에도 어느 권력 기관의 김정일 초상화가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행했다. 이렇듯 은밀히 소문내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기만적 선전에 도전하는 자들이다.

사실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조작해서 유포시킨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구들을 소개한다면 우선 김일성·김정일을 민족의 구심점이나 통일 대통령인 양 남한 민심을 조작하는 부서가 바로 노동당 통일전선부내 101연락소와 26연락소이다. 이 부서들은 원래 대남 심리전 부서들이다. 이 기관들을 역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대북 심리전’도 병행하는 것이다. 처음엔 노동신문에서 남조선 김 아무개 교수, 박 아무개 재야인사, 이런 식으로 기술했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이름까지 조작하여 김일성·김정일을 추앙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대외선전도 마찬가지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대외선전국 작가 몇 명이 외국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 김일성·김정일을 마치 세계혁명의 지도자인 것처럼 찬양하고 있다. 여하튼 구체적인 사진증거가 없이 남발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 명의로 된 김정일 찬양 글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런 허망한 날조물들이 공개적인 노동신문, 조선중앙TV를 통해 매일매일 방송되고 있

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전보위부에는 아예 유언비어를 담당하는 과도 있다. 입소문에 귀가 얇은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마치 ‘북한이 세계 군사강국이며 강성대국이 멀지 않았다’는 전설의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전파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조작하는 유언비어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언비어가 되려면 일단 소문이 나야 하는데 김정일과 관련한 소문들이라면 모두 북한 정권이 무서워하는 꺾속말들이기 때문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북한 정권이 하는 거짓 선전보다 더 빠르고 더 흥미진진한 북한 주민들의 입소문 속에서 김씨 일가 신격화는 흔들리고 있다.

한류를 전파시키는 여대생들

북한의 ‘용감한 녀석들’은 바로 개방의식을 몸소 표현하는 북한의 여대생들이다. 그녀들은 남한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처럼 헤어스타일을 꾸미고 남한식 억양은 물론 옷차림도 따라하고 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됐지만 최근 여대생들이 실용적인 핫팬츠를 기숙사 내에서 착용하거나 혹은 핫팬츠를 입고 서너 명씩 짝을 지어 대담하게 학교 밖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또한 남한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100일을 기념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것도 여대생들이 먼저 주도한

유행이다. 북한 연인들이 기념일 챙기는 모습은 굉장히 소박하다. 대개 밥을 사주거나 호박이나 오이를 주기도 하며, 과일이 귀하기 때문에 꿀을 2개씩 갖다 주기도 하는데 실속 있는 먹거리를 챙겨주는 모습이 매우 이채롭다. 특별한 날에 남한 연인들은 해돋이를 보러 해변 지역으로 가는데 북한에서는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는데다가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아 일종의 100일 기념 선물로 자전거를 태워준다.

재미있는 것은 남한의 청소년처럼 북한 청소년들도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그때는 서로 지우개, 볼펜 등 학용품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북한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한 드라마의 주인공을 모방하여 헤어스타일, 억양, 옷, 연애 방법까지 전파시키는 여대생들이야말로 ‘용감한 녀석들’일 것이다.

탈북자들에게 국경을 열어주는 국경경비대원들

또 다른 북한의 ‘용감한 녀석들’은 탈북자들을 몰래 도강시켜주는 국경경비대원들이다. 물론 그들은 정의감보다 돈이나 뇌물을 위해 탈북자들을 도와준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2만 4천 명 외에도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나가 있는 북한주민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행동으로 옮기는 숫자가 이 정도이니 실제 북한 내부에서 탈북을 결심하거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탈북

유행을 이용하여 국경경비대원들은 돈을 버는 것이다.

최근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의 비리수법의 노골화 수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으면 1년 전까지만 해도 탈북하려다가 보위부에 잡히면 식량과 물자를 사러 중국에 잠깐 갔다 올 거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면 못 본 척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랫동네’(남한)에 간다고 해야 오히려 잘 보내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작정 강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아무 연고가 없으면 중국에 숨어 지내다 공안에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북송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로과정을 발설하면 국경경비대원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시범으로 총살된 군인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조용히 물어본다고 한다. “너네 어디 가니?”해서 “아랫동네(남한)에 갈 겁니다”하면 “잘 가라”, “제발 붙잡혀 오지 마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국경경비대원들이 남한에 간다고 하면 안심하는 이유는 한국에 먼저 탈북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돈을 주고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탈북자들인 경우 강 건너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숨어 지낼 곳과 탈북 비용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국경경비대원들은 그런 조건의 탈북자인지 아니면 무작정 연고 없이 탈북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어디로 가는가?”고 넌지시 묻는다는 것이

다. 그런데 대놓고 “남조선 갈 겁네다”라는 말은 절대 안한다고 한다. ‘아랫동네’라면 남한을 지칭하는지 다 아는데 굳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국경 경비대원들 사이에는 ‘천 달러 벌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만 달러 벌기 운동’으로 액수가 더 커졌다고 한다. 이는 군복무 기간 동안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몰래 돈을 받아 제대할 때까지 1만 달러를 축적한다는 뜻이다. 국경경비대원들은 돈을 부대 안에 숨기면 탄로날 수 있어 부대 근처에 민간인 단골집을 하나 고정시켜 놓는다고 한다. 군인들은 그 집에 돈을 맡기고 집 주인은 밀매나 탈북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이런 유착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무력부 보위국이 검열단속을 했지만 워낙 수법들이 교묘한데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간부들까지 가담하고 있어 명분상의 검열만으로 끝날 뿐이다.

북한정권은 탈북을 막으려 하고 현지 군인들과 간부들은 탈북으로 돈을 버는 이러한 행태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이 지방과 말단까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무튼 탈북자들의 도강을 눈감아준 국경경비대야말로 목적이야 어떻든 목숨을 담보로 북한정권의 명령에 도전한 용기 있는 군인들이다.

시장을 개척한 북한 '아줌마의 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또한 가족을 위한 아줌마들의 생존력이 빛을 발휘하는 곳이다. 고난의 행군 당시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북한에 장마당이란 자본주의를 끌어들었다. 남자들이 체면을 중시하며 배급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때 아줌마들은 북한정권의 배급제를 무시한 채 자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남편들은 나랏일을, 아내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며 말이다. 만약 시장의 주역이 남성들이었다면 북한 정권은 보다 강력한 통제로 압박했을 것이고 결국 오늘 의 시장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 아줌마들은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검찰 등의 기관들이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면 온 가족의 생존권 명분을 내세워 거칠게 항의했다. 김정일의 지시가 아무리 엄격해도 밥주걱을 쥐고 있는 아줌마들의 현실적 요구와 항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줌마들은 그러한 가족 생계를 책임진 경험과 지식으로 시장가격을 따졌고, 명령과 복종의 구조만 있던 북한에 수요와 공급의 질서를 끌어들이며 충성가치를 초월하는 물질가치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다.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장, 그 원조인 장마당의 선구자들인 아줌마들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행동으로 항거한 탈북자들

북한체제에서 탈북이란 목숨을 건 사투이다. 꺾어보지 않은 자는 그 위험을 다 알 수가 없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항거를 탈북이란 행동으로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탈출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해 밀림을 헤쳐오기도 했으며 끼니를 굶으면서까지 몽골의 사막을 횡단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2만 4천 명을 넘어섰다.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우선 북한에 준 타격은 본인은 물론 사돈의 8촌까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북한의 당간부 인사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아마 그런 전통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북한 주민 2천만 명 중 간부가 될 인물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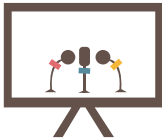
하긴 김정일, 김정은도 당 조직지도부 인사원칙으로 본다면 엄연히 탈북자 가족이다. 김정일의 처 성혜림의 언니 성혜량은 1996년 미국으로 망명해서 김정일 왕조정권을 폭로하는 「등나무집」이란 책을 냈다. 함께 탈북했던 성혜량의 아들 이한영은 김정일의 처조카로서 옆에서 지켜본 김씨 독재를 폭로한 「김정일 로열 패밀리」란 책을 냈고, 그 때문에 암살당했다. 이후 성혜림도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5월 사망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까지도 역시 마카오 등지를 떠돌며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3대 세습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현재 김정은도 결코 다를바 없다. 우선 김정은의 어머니인 김정일의 세번째 처 고영희는 재일교포 출신이다. 그런데 북한이 선전하는 김씨 일가 혈통의 역사에는 일본이란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김정은의 이모인 고영희의 동생 고영숙도 2001년 10월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영숙은 현재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외부인은 물론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북한에서 지도자 가문의 순수성부터 의심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탈북자들이다. 실제로 그들은 북한 내부의 실상을 바깥 세상에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목숨 걸고 탈출하던 그 용기로 지금도 낯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들이야말로 진정 ‘용감한 녀석들’일 것이다.

3

주민으로부터의 변화 조짐



북한 TV가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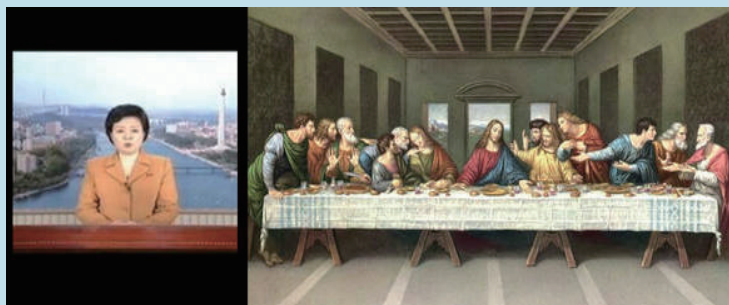
조선중앙TV를 분석해 본 결과 2006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북한의 특성상 영상 편집물들은 대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프로그램들이어서 가장 표준적인 저녁뉴스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2006년 이전 북한은 단지 파란색 화면에 아나운서를 중앙에 두고 방송을 하였다. 매일같이 북한 뉴스의 반은 ‘김씨 일가의 신격화’여서 자칫 형식적이고 딱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의도적으로 파란색 바탕을 사용하였다. 파란색은 색

체심리학에서 ‘긴장완화’를 의미한다. 만약 북한에서 배경을 혁명이란 의미의 ‘빨간색’을 사용했다면 주민들의 심리정서는 대량 아사와 맞물려 한층 격렬해졌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혁명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뉴스에서조차도 상당히 계산적인 북한의 선동기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6년 이후에 북한은 단순한 판넬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변화를 꾀한다. 이것은 북한도 시대의 트렌드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이 유명해 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소실점(消失點)의 역할이 컸다. 천장과 문의 연장선을 일직선으로 그으면 그 끝이 예수의 눈에 정확히 떨어진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중심부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2006년 이후 북한의 뉴스 또한 의도적으로 배경 속의 대동강의 끝 부분을 아나운서의 얼굴에 맞추므로써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노렸다. 소실점을 얼굴 쪽에 둬므로써 아나운서가 내뱉는 ‘김씨 일가의 신격화’에 신뢰성을 부여했다. 단순한 그림 판넬에도



▲ 소실점을 이용하여 아나운서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북한뉴스의 배경화면

북한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북한은 신격화 전통만은 고집한다. 우선 아래 사진들을 보면 모든 아나운서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자세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는 ‘김씨 일가’에 대한 예의 차원이다. 앉은 자리에서 ‘차렷’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아래 세 사진 중 양 옆의 사진들은 북한 사회의 일반 소식을 전하는 보도장면이고 가운데만 ‘김씨 일가’ 현지시찰 보도장면이다. 다른 사진들의 배경은 사회 전반을 이야기하듯 평양시 전경 또는 대형 건설물을 보여준다면, 가운데 김정일 현지시찰 보도는 품위와 권위를 강조하는 원목 배경으로 처리했다.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좀 더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북



▲ 북한뉴스의 여러 배경화면과 아나운서의 다양한 자세

한 사회의 일반 소식들을 전할 때에는 아나운서의 자리배치도 정중앙에서 한쪽으로 옮겨 앉는다. 자세나 손 위치도 다소 자연스럽다. 수령과 주민을 철저히 차별화하는 선전선동 원칙의 관행이다.

최근 북한은 뉴스에 컴퓨터그래픽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나운서 옆에 대형 PDP TV를 두고 방송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북한의 TV프로그램이 점차 현대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세를 볼 때에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엿보인다. 이것은 컴퓨터그래픽이 도입되면서 구도와 조화를 위한 차선택으로 볼 수 있다. ‘김씨 일가’의 현지시찰 소식을 알리는 ‘전투적’인 보도 외에 다른 소식들은 일종의 ‘심리적 편안함’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TV를 바꾸게 하는 그 엄청난 힘은 과연 무엇일까? 단지 젊고 새로운 독재자인 김정은의 지시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장화로 인한 물질주의가 전체주의를 초월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가 전파된 결과이다. 시장이 주도하는 주민문화를 거부할 경우 이념 주입이 공허한 메아리로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말하자면 시대의 유행을 주도하는 방송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쫓기는 전통의 변질인 것이다.

현실과 선전에 격차를 느끼는 주민들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주체문학이론을 보면 ‘명곡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물론 주체문학이론이 말하는 ‘명곡’은 한국의 유행가와 전혀 다르다. 주민들 스스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세뇌곡’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시대별 대표가요들을 보면 부흥하는 북한이 아니라 마치 체제 붕괴 과정이 그대로 보이는 듯하다.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1960년대의 대표 곡인 <천리마 기수의 노래> 3절 가사를 보면 ‘공산주의 언덕이 저기 보이네’라는 대목이 있다. 당시의 사회주의 자신감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당장의 체제마저 불안한지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노래가 북한의 대표 명곡이다. 체제 뿐 아니라 김씨 일가 우상화 가요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 김일성 신격화의 대표 곡 중에는 <수령님 밤이 펴 깊었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다. 김일성의 노고의 밤을 노래한 것이다. 그때는 ‘밤늦도록 불 켜진 수령의 창문’이라는 그 설정만으로도 노래가 됐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 때에는 그러한 감성의 호소가 아니라 아예 직설적으로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총폭탄’이라는 광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주민들에게 열악한 삶을 제공한

김정일의 정치는 그만큼 감동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당 선전선동부는 주민들과 배고픔을 함께 나누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장군님의 쫄기밥>이란 노래까지 만들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거부감만 키웠다.

북한이 체제 확신을 갖고 있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방직공의 노래>, <별목공의 노래>, <즐거운 아침> 등 사회 구성원들의 구체적 자부심을 드러낸 노래들도 많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동구권이 붕괴되던 1980년대 말부터는 북한도 체제 위기감을 의식하여 개인정서를 배제하고 전체주의로 일관하게 된다. 심지어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라는 노래까지 등장하게 된다.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그 노래의 보급을 강요할 때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당을 따라 안 가겠다고 했느냐? 지금 당장 수령을 배신하겠다고 했느냐?”라는 은밀한 대화들로 당국의 선동정책을 우회적으로 비웃기도 했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는 관행적인 체제명분과 이념의 형식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수령과 사회주의를 목숨 바쳐 지키자는 내용의 가요들을 창작하여 배포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주민들의 정서가 아니라 신념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 북한 정권의 가요들은 그때부터 더욱 비장하고, 전투적이고, 광기적인 주제와 양상으로 바뀐다. 주적이었던 미국·한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마치 그 쌀들이 포알이나 되는 듯 장군님과 사회주의를 결사옹위하자는 자폭정신의 노래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과 선전의 격차를 더 깊이 인식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듯 북한 정권은 오늘날 선군 시대에 맞춘다며 무대음악의 형식마저 군대식으로 바꾸는 마지막 선전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전에는 가수 혼자서 불러도 될 서정적인 노래들까지 대규모의 합창단으로 무대 위에 올려놓고 김정일의 말처럼 방사포와도 같은 굉음을 연출한다. ‘정서의 노래’가 ‘정치의 노래’로 변질되어 잡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두개의 독재, 즉 권력독재와 감성독재라는 양대 기둥에 지금껏 의지해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 감성독재는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지않아 그 땅에 울릴 진정한 명곡은 자유와 해방의 노래일 것이다.

은어를 통해 본 북한의 민심

‘숨기는 말’을 가르키는 은어(隱語, slang, jargon)는 어떤 특정 집단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을 뜻한다. 주로 은어는 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풍자하는 데 쓰이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주로 공산당이나 식량난에 관련한 은어가 발달했다. 우선 당 관련 은어로는 노동당을 재앙만 가져온다고 ‘재앙

당’이라고 비꼬아 부르며, 공산당을 조롱하여 ‘콩사탕’으로, 당 간부를 ‘늑대’로 부른다. 또 우상화 관련 은어도 빠질 수 없는데 까투리 새끼처럼 김일성 부자 우상화를 말로만 떠드는 당정 치일꾼들을 가리켜 ‘까투리 새끼들’이라고 하며, 집회나 학습 때 박수는 많이 쳐야 신상이 안전하다는 뜻으로 ‘박수보약’이라고 한다.

당이 실시하는 정책에 관한 은어도 있다. ‘뼈다구 파낸다’는 말은 성분조사 명목으로 개인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무덤 속의 조상 뼈까지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빈대 탄다’는 천리마운동 등 주민의 몸에 있는 빈대까지 탈 정도로 극심한 노동착취를 그리고 ‘빈달구지’는 아무 내용이나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한 사상학습을 일컫는 말이다. 이 밖에도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가 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각 직장과 조직들에 심어놓은 사람들을 자꾸 짹짹거리린다는 뜻으로 ‘쥐새끼’ 또는 ‘뺨기박기’라고 부른다.

위와 같은 당 관련 외에도 2000년 초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난과 관련한 은어가 많아졌다. 우선 음식과 관련된 은어로는 강냉이 가루로 지은 가루범벅인 밥을 ‘가루밥’으로, 폭탄에 맞아 움푹 들어간 것처럼 조금만 담긴 밥을 ‘폭탄밥’, 대패로 민 것처럼 그릇을 깎듯이 담은 밥을 ‘대패밥’이라고 한다. 이어 국과 관련된 은어로는 고기는 없고 기름만 떠 있는 국을 가리켜 ‘돈수

대근탕', 소금만 넣고 끓인 국이나 죽을 '나일론국' 또는 '염소대 조탕'이라 부른다. 이외에도 병원과 의사,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무상의료제도를 '무삼의료제도'라 부른다.

북한에는 간부들과 체제를 비난하는 여러 은어들과 함께 각종 풍자어들도 있다. 우선 간부들부터가 김정일을 '태양이 맞췄,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고'라는 말로 비꼰다. 1990년대 중반 배급경제 붕괴 이후 북한의 모든 생산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공장문을 닫았다. 자재부족도 심한데 간부들의 갈취 현상까지 겹쳐 그 피해가 더 심했다. 이를 야유하여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풍자했다. “반장은 절반만 해 먹고, 직장장은 직접 해 먹고, 세포비서는 세심하게 해 먹고, 지배인은 지시해서 해 먹고, 당비서는 당당하게 해 먹으니 종업원들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라고 말이다.

그 외에도 성폭력을 일삼는 간부들을 조롱하는 풍자어도 있다. 북한은 혼성부대가 많다. 중학교를 졸업한 16세부터 남자들은 10년, 여자들은 7년 군사복무를 하기 때문에 여자 부대들이 많다. 그래서 북한 군 내에서는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군들은 군 지휘관들의 성노리개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군 지휘관들을 두고 북한 주민들은 “소대장은 소심하게 해 먹고, 중대장은 중간 중간 해 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 먹고, 사단장은 사치스럽게 해 먹고, 군단장은 군법으로

해 먹고, 총참모부·총정치국 군 간부들은 총체적으로 해먹는다”라고 비판다.

당의 구호도 북한 주민들의 야유 대상이다. 북한에는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있다’라는 당의 구호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고난의 천리를 가면 고난의 만리기도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웃는다. 북한 노동당은 김정일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때 이 구호를 사용한다. 이를테면 군인들은 민간인 재산을 도둑질 할 때, 노동자들은 국가재산을 훔쳐 시장에 내다 팔 때 자기들의 그 결심과 행동을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고 한다.

김일성을 ‘항일의 영웅’이라고 선전하는데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악독한 일본놈들을 몰아내고 왜정 때보다 더 악독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소곤거린다. 이렇듯 북한의 체제와 관련한 은어들과 풍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북한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북한의 종교는 수령주의



세계는 북한을 ‘김씨 종교국가’라고 한다. 실제로 북한이 정상적 사회주의국가였다면 동구권 붕괴 때 함께 이성의 새 시대를 맞았을 것이다. 또 최소한 북한의 국호처럼 정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면 제한된 민주적 결정으로나마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을 조심스럽게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단순히 일인 장기독재 국가도 아니다. 그랬다면 최근 중동에서 분민주화 바람이 리비아의 카다피의 철권통치를 끝장낸 것처럼 민중봉기도 가능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3대까지 세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물리적 독재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세뇌의 독재, 개인의 절대적 우상을 전제로 하는 종교적 통치 때문이다. 물론 북한 같은 나라를 종교국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비유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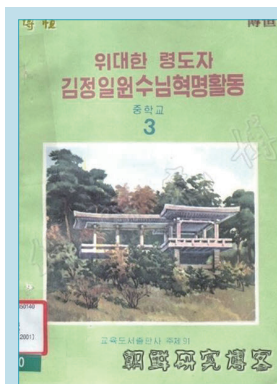
다. 모든 종교에 대한 모독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역사에 개인을 위해 전체가 희생하라는 극악한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고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북한과 종교를 비교 설명하려고 한다.

북한의 '신(神)'은 김일성

북한의 '신'은 김일성이다. 그래서 북한에선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한다. 김일성이 출생한 4월 15일도 '태양절'이라고 한다. 북한 정권은 그날을 '조선의 시원'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계산되는 세상에 없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북한의 '신'인 김일성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북한의 세월은 물론 주민들 2천만 명도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엄청난 폭언인 셈이다.

북한의 '성전(聖典)'은 혁명역사 교과서

북한의 '성전'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책들이다. 북한이 자랑하는 무료교육은 사실 김씨 신격화를 위한 강제교육이다. 유치원 때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어린 시절, 소학교(남한의 초등학교) 때에는 김일성·김정일의



▲ 북한의 혁명역사책

학생시절,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함께 성장한다. 그 ‘혁명성전’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을 북한 모든 주민들의 생명도 구원해주는 구세주라고 한다. 그 생명이란 바로 정치적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적 생명체로서 육체적 생명 외에 정치적 생명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혁명성전’에는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숙청된 수많은 육체적 생명들의 비극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성전(聖殿)’은 혁명역사연구실

북한의 ‘성전’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연구실들이다. 이를테면 신격화 성전인 썸이다.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그 연구실들에선 개인의 생각이란 있을 수가 없다. ‘수령교시 학습’, ‘혁명역사 따라 배우기 운동’, ‘충성의 선서’, ‘맹세모임’ 등 온통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생각뿐이어야 한다. 북한의 ‘혁명성전’들에선 수령 찬가와 혁명설교, 참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성가(聖歌)’는 김부자 찬양가요

북한의 ‘성가’는 김부자 찬양가요들이다. 북한 TV의 방송개시 음악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이고 방송마감 노래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이다. 선서를 하거나 각종 행사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장군이란 김씨 밖에 없는 북한이어서 주민들에게 자

나 깨나 그 감사와 충성으로 살라는 의미인 것이다. ‘성가’의 가사와 선율들은 북한의 그 어느 노래보다도 장엄하고 밝고, 경건하다.

북한의 ‘성직자’는 노동당 비서

북한의 ‘성직자’는 북한의 ‘혁명성전(聖典)’을 설교하는 노동당 비서들이다. 그들은 매 주마다 김일성·김정일의 지침을 전달하며 강연회, 교시학습 등 온갖 정치적 세뇌를 담당한다. 그래서 당 비서는 당 조직지도부가 엄선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당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겸손’해야 하고 누구보다 ‘충실’해야 하며 누구보다 ‘인간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수령과 당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일꾼들이어야만 한다.



▲ 북한의 봉수교회 이성숙 목사

북한의 '참회'는 생활총화

북한의 '참회'는 생활총화이다. 생활총화란 김일성의 교시·김정일의 지침을 먼저 인용한 뒤 그 기준에 맞게 생활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형태이다. 노예의 복종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어려서부터 자아반성을 습관화·생활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활총화에서는 자신의 죄만 고백하지 않는다. 남들도 무조건 비판하도록 한다. 이렇듯 북한 정권이 강요하는 참회는 개인들을 산산이 분열시켜 수령주의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헌금'은 당비

북한의 '헌금'은 당비이다. 당비란 당원들이 당조직에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당생활 개념이다. 월급을 줄 때



▲ 북한의 참회 '생활총화'

아예 공제되기 때문에 결코 자발적이지도 않다. 그 외에도 스스로 바쳐야 될 헌금은 따로 있다. 충성의 외화벌이, 선군지원, 사회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 헌금에 대해 북한 정권은 수령을 위해, 조국을 위해 사는 국민의 양심이라고 설교한다.

북한의 '계율(戒律)'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북한의 '계율'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이다. 그 계율의 요구대로라면 아예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령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죽은 목숨인 것이다. 때문에 당원이라면 그 10대원칙을 자자구구 외워야 한다. 그것이 입당의 조건이자 곧 삶의 조건으로도 된다.

북한의 '성물(聖物)'은 초상화

북한의 '성물'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이다. 그 초상화들은 어디에나 있다. 가정마다 사무실들마다, 교실에도 복도에도, 정문마다 거리마다, 심지어는 가슴팍에도 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항상 수령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평시에는 그 초상화 밑에서 양심을 닦아야 하고, 명절이면 그 초상화를 쳐다보며 만세를 불러야 한다. 성인(聖人)들은 만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쳤지만 북한의 김부자는 죽어서도 만인이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유혹통치를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은 사랑의 독점을 위해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원수들을 끝없이 증오하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에는 정치 범수용소가 있고 그 증오의 한을 풀기 위해 3대까지 멸족시키는 악법도 있는 것이다. 성인(聖人)들은 인간들을 위해 삶도 죽음도 비참하게 바치며 고행을 겪지만 소위 북한에서 신이라는 김일성·김정일은 죽어서도 ‘태양의 미소’를 짓고 있다.



5

북한의 폐쇄정치를 뚫는 과학의 발전



북한도 휴대폰과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시장이 주민들의 생존공간이라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정보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휴대폰 보급 상황부터 본다면 북한에서 휴대폰(북한에서는 ‘손전화기’라고 한다)은 접이식, 밀개식(북한 표현), 터치식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접이식이나 밀개식은 주로 북한에서 판매되는 것이고, 터치식 같은 경우 해외에서 출장자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들어간 것들이다. 그 중에는 한국 제품인 삼성이나 LG도 있다고 한다. 다만 스마트폰은 아직 북한에 반입되지 않았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다.

북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중국의 huawei(华为)와 ZTE(中兴) 제품들이다. 휴대폰 구입과 가입을 위해서는 200유로만 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북한의 휴대폰 사용은 분기당 최소

통화요금인 3,000원을 내고 입금 충전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서비스로 매달 무료통화 200분과 무료문자 20개를 준다. 분당 4.2센트이며 잔금이 부족하면 200분짜리 카드를 8.4달러에 사면 된다. 통화가 갖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분기에 3,000원씩만 내고 달러카드를 별도로 사지 않고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매달마다 적용되는 200분 무료통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들에겐 200유로가 큰돈이어서 가입을 못할 뿐이지, 일단 큰맘 먹고 휴대폰을 사면 현상유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북한의 휴대폰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 북한 내 휴대전화 운영권을 획득한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공개한 북한 휴대폰 가입자 수는 80만 명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30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이 보안 명목으로 오라스콤이 관리 못하도록 차단한 특수 가입자들 때문이다.

북한은 오라스콤에 이동통신 허가를 주는 조건으로 오라스콤이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했고, 거기에 노동당이나 군부, 내각 등 특수기관 성원들을 가입시켰다. 그래서 휴대폰 앞 번호도 다르다. 오라스콤은 191(193)-2xx-xxxx이지만 특수가입자들의 핸드폰 앞 번호는 195-xxx-xxxx라고 한다. 그러한 특별 가입자들의 휴대폰에는 무료통화 300분과 무

료문자 30개가 추가된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당 본부 직원들에게는 1분기 당 100분을 더 준다고 한다. 특혜는 그 뿐이 아니다. 일반 주민들은 200분을 추가할 수 있는 통화 카드를 8.4달러에 판매한다면 노동당을 비롯한 특수기관은 업무 명목으로 북한 원화인 840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환율로 따지면 공짜나 다름없는 금액인 것이다. 휴대폰 사용에도 신분계급을 적용하는 계층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컴퓨터 또한 북한의 기존 질서와 상반되는 새로운 대중소통 질서를 발생시켰다. 현재 북한에는 컴퓨터 보급 대수가 400만대가 넘는다. 이는 기관과 개인 소유를 다 합친 숫자로서 이 중 절반은 평양에 집중돼 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은 없이 ‘광명망’, ‘창광망’, ‘햇불망’, ‘조선정보센터망’을 비롯한 내부 네트워크 식이다. 망들의 주요 정보들은 주로 김부자 신격화와 체제우월성 선전뿐이지만 채팅, 메일 등의 개인소통 기능들이 있어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

북한에서 컴퓨터 보급과 개인들의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 개인들의 해킹 때문에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초기 북한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시점은 1997년경이다.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Visual C++ 5.0(1997), Visual C++ 6.0(1998)을 해마다 출하하던 시기였지만, 북한은 그전까지 통합개발환경, 컴퓨터 파일속도 등의 문

제로 하여 Windows보다 MS-DOS를, Visual C++보다 Turbo C++(Borland사)를 더 선호하였다. 북한 공작부서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해킹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Visual C++ 5.0과 MASM 6.0으로 개발됐다.

북한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급증한 것은 해커가 유망직업으로 떠오르면서부터라고 한다. 컴퓨터를 소유한 간부 자녀들이 공작부서가 만든 바이러스 관련 졸업 논문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바이러스가 사회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컴퓨터 대중화는 상상도 못하고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MS-DOS와 전혀 다른 방식의 바이러스에 흥미를 가진 북한의 컴퓨터 전문가 혹은 학생들에 의해서 공작부서들의 바이러스 소스(source)가 분석되기 시작했고, 그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났다.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선 ‘바이러스가 곧 출세이다’는 말이 오고 갈 정도라고 한다.


북한 내각 권력기관들이 컴퓨터 인재발굴에 서로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남보다 더 뛰어난 바이러스를 만들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배우면 바이러스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변종들은 통제 불능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나중엔 권력기관들의 컴퓨터들까지 감염되는 사태가 확산되자 당황한 북한정권은 백신 연구진을 만들고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

는데 “바이러스제거 치료제입니다”라는 알림창이 자주 실리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는 댓글보다 바이러스를 유포하지 말라는 욕이 더 많고, 일부 댓글들은 정치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거칠게 항의한다고 한다.

이렇듯 휴대폰과 컴퓨터의 도입은 북한 정권에 또 다른 통제 의 고민과 과제를 주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인들간 정보가 오고가고, 컴퓨터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은밀한 대화들이 확산되는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36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제3장

권력집단

1. 차번호를 통해 본 권력기관 서열
2. 김정은의 스킨십 정치
3. 김정일의 '비준정치' 를 따라하는 김정은
4. 김정은 세습의 3대 악재

1

차번호를 통해 본 권력기관 서열



북한에선 차번호가 매우 중요하다. 힘있는 권력기관 소속 일수록 뇌물에 환장한 도로교통 보안원들이 덜 매달리기 때문이다. 권력기관 소속을 뜻하는 차 앞 번호가 '2·16'인 것만 봐도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우선하는 북한의 신격화 시스템을 잘 알 수 있다.

김정일이 선물한 자가용 승용차만 평양시에 천여 대에 이른다. 북한에는 두 부류의 자가용이 있는데 귀국 재일동포들의 자가용과 김정일의 선물 자가용이다. 김정일의 선물 자가용 차 번호는 다른 자가용과 차별화를 위



해 숫자 앞에 반드시 0을 붙인다. 그 이유는 김정일 신격화 차원에서 모든 숫자 앞에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2·16'과 함께 '0'으로 시작되는 자가용은 김정일 최측근들에게 준 선물 자가용이란 뜻이다. 그 외에도 개인차가 아닌 2명 혹은 3명이 공유할 수 있는 선물 자가용 형태도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들과 박사, 원사들, 평성과학원 박사들, 항일투사들과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준 차들이 바로 그 부류이다. 이런 경우는 직접 운전할 나이가 아닌 노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기사를 두고 돌려가며 차를 사용한다.

김정일은 독일에서 신차를 들여올 때마다 최측근들의 차를 바꿔주었다. 신하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처럼 최고급차가 흔치 않은 나라에서 자기와 똑같은 모델이 몇 십대 있어야 테러목표로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포드·크라이슬러, 독일의 벤츠·BMW 등 보통 몇 대의 선물 고급승용차들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에게엔 업무기사 외에도 가족기사가 따로 있다.

특권을 상징하는 '2·160'으로 시작되는 번호판을 가진 차가 도로에 나타나면 거리의 모든 차들은 스톱된다. 이때는 신호등을 대신하는 교통 보안원들이 모든 차들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폰 고장으로 미리 연락을 못 받았다 해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차들만은 도로 중심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대뜸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을 방문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중구역과 보통강구역 등 중심 구역들에는 좌

우차선 상관없이 도로 중앙에 노란 색 두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금지선은 일반차가 들어가서는 안 될 오직 김 씨 일가와 그 특권층들의 차들에만 허용된 권력선이다.

‘2·16’의 ‘평양’ 같은 지명으로 시작되는 차번호들에도 북한만의 신격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북한의 차번호는 지명과 기관을 뜻하는 앞 번호 그리고 뒤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앞 번호만 봐도 어느 소속기관 차량인가를 알 수 있다. 앞 번호 ‘01’ 같은 경우 당 조직지도부 차번호이며, 다른 권력기관들은 ‘02’, ‘03’ 등과 같이 그 뒤의 숫자로 이어진다. 신기한 것은 북한 차번호들 중 앞 번호가 10으로 된 기관차량은 없다. 왜냐하면 숫자1이 김 씨 일가와 관련한 북한만의 절대 개념이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10을 뛰어넘어 11부터 시작된다.

김정일을 1호로 지칭하는 숫자의 구속감과 사대주의가 결합되어 러시아 대사관 소속 차들은 ‘외 01’로 시작되고, 중국 대사관은 숫자 1의 의미를 러시아와 똑같이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외 10’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인민무력부는 민간 차들과 구별하기 위해 ‘평양’ 지명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총정치국은 ‘8·15’ 총참모부는 ‘8·16’로 시작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십 단위 숫자를 중시하여 외무성은 ‘평양 30’, 문화성은 ‘평양 60’으로 시작하고 있다. 북한이 저들만의 사회주의 무료혜택이라고 자랑하는 교육성은 ‘평양 61’, 보건성은 ‘평양 63’으로 시작한다.

2

김정은의 스킨십 정치



최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신격화를 위해 김정은 현지시찰 소식을 잇달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비해 김정은의 스킨십 장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신격화 정치로 매우 권위적이었던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서려는 젊은 김정은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일인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작은 변화가 상당한 파장을 준다. 따라서 북한은 지도자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스킨십은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절대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반인들과의 스킨십 장면을 잘 노출하지 않았다. 가끔 지도자의 인간성을 부풀리는 차원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주민들의 손

을 만지거나 안아주는 장면을 연출하긴 했지만 지금의 김정은처럼 반복해서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먼저 김부자의 신적 존재를 유지하면서도 단 한 번의 스킨십만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김일성·김정일의 존재는 북한의 절대개념으로 신격화되어 있어 굳이 스킨십 없이 가까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주민사랑을 설명할 수 있었다.

김부자를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접견자’라고 한다. 접견자는 김일성·김정일과 20분 이상 단독대화를 하거나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다. 북한 정권은 신격화 연장선에서 접견자들에게 공민특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당 조직지도부가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접견자들의 경우 현행범으로 범죄증거가 확실해도 김일성·김정일에게 비준을 받아야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접견자들은 당간부 등용과 표창에서 반드시 먼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해마다 김부자 명의로 전국 충성계충에게만 보내는 선물명단에도 제일 앞자리에 이름이 놓이게 된다. 접견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특혜와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충성위계질서를 만들어 놓은 북한, 그래서 김부자가 가까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만 했던 북한 주민들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지도자와 주민과의 분리는 경호 목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는 누구도 감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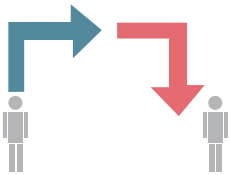
접근할 수 없도록 경호군관들이 사전에 접견원칙을 강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악수를 청할 때를 대비하여 먼저 손 소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접견절차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접견 원칙으로 지도자와 마주서서 이야기 할 때 절대 마주보지 말고 지도자의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받는다. 이처럼 시각적 평등도 허용치 않는 절대군주,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김정일이었던 것이다.

그런 신격화 국가였던 북한에서 김정은이 스킨십 정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북한 정권 스스로가 신격화 공백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정은에게 스킨십마저 없다면 업적도 인간성도 조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도자라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몸으로까지 강조해야 할 판국이 된 것이다.

한편으로 김정은의 스킨십 정치는 북한 사회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일부러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의식할 만큼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김정은의 스킨십, 이는 결코 젊은 지도자의 새로운 행동의 리더십이 아니라 북한 권력층이나 주민들의 3대 세습 피로감에 충성을 호소하는 김정은의 ‘신격화 구걸’인 셈이다.

3

김정일의 ‘비준정치’를 따라하는 김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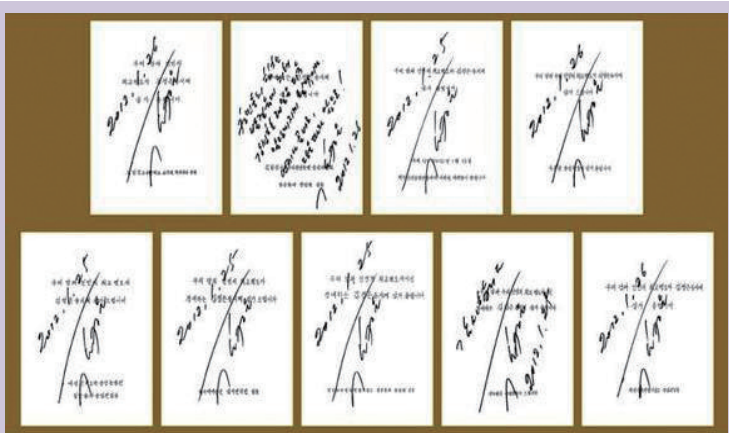


얼마 전 김정은의 자필비준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일인지배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김정일의 ‘비준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비준정치란 어떤 것일까? 북한에서 유일 비준제도가 생긴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김일성 주석의 권한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한정시키고 사실상 당 조직비서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한 김정일은 유일비준을 통해 일인지배 체제를 시작했다.

초기 비준제도 명목은 김일성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가 선별하고 김정일 당 조직비서가 비준한 다음 당 총비서에게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의 내각·군·정부의 모든 문건들은 노동당의 해당 상급부서들을 통해 당 조직지도부로 집중되도록 법제화됐다. 예컨대 외무성은

당 국제부, 문화성은 당 선전선동부를 거쳐 당 조직지도부로 문건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런 관계로 제의서 작성과 준비, 마감에 이르기까지 노동당 각 부서들은 관리 단위들에 대한 지도와 개입을 구체화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 과정에 북한의 내각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반면 당은 절대권력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여기서 당 조직지도부는 주요 간부들의 인사권은 물론 당 지도권한으로 각 부서들에서 모여진 문건들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궁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듯 문건의 집중화는 곧 김정일의 당 조직비서 유일지도체제를 완성시켰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당 조직지도부의 제의서·비준제도 장벽에 꼭 막혀 나라 실정을 전혀 알 수 없는 눈먼 지도자로 전락했다. 김정일이 그러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김정일이 모든 권력과 기능을 빠짐없이 장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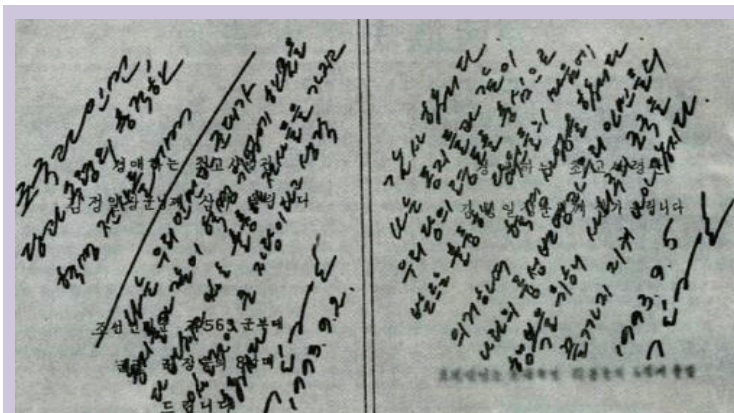


▲ 노동신문이 공개한 김정일의 자필 사인

뒤였다. 아래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여러 경로를 거쳐야 했고, 경호부대인 1호 호위총국마저 당 조직지도부에 소속되어 근접경호가 아니라 근접감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김일성의 주석권한을 무력화시킨 김정일의 비준은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가장 상위등급은 ‘친필비준’이었다. ‘친필비준’이란 김정일이 제의서 내용을 자필로 일부 수정·추가하고 날짜와 이름을 적어 넣는 방식의 비준이다. 이 ‘친필비준’은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는 뜻으로서 강제성을 띠며 다른 제의서들에 비해 최우선 실행권한이 부여됐다. 때문에 이 비준을 받은 제의서일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했다. 만약 지연되거나 김정일이 결과에 불만족했을 경우 당 조직지도부는 지도권한으로 관련 간부들을 색출하여 엄벌했다.



▲ 최상위 비준에 속하는 김정일의 ‘친필비준’

김정일의 두 번째 비준등급은 ‘존함비준’이었다. 김정일의 자필 내용이 없이 날짜와 이름을 새겨 넣는 형식의 비준이다. 이런 비준의 사안들은 김정일이 친필비준처럼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그냥 허락했다는 의미가 더 컸다. 그래서 이런 비준 문건들은 강제성보다 시간에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되는 성격을 가지며, 그 결과는 김정일이 아니라 당 조직지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날짜비준’이 있다. 이 비준은 김정일의 자필이나 이름은 없이 그냥 비준 당일 날짜만 표기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보았다는 수준의 비준이다. 그러나 이 날짜비준 문건이 내려올 경우 당 고위 간부들은 김정일이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김정일 서기실의 보고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서기실은 당 조직지도부 서기실과 의례(의전)국 서기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당 서기실은 제의서들의 분야별 중요도 순위에 따라 목차를 작성하고 문건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당 조직지도부가 제의서 목차를 잘 만들어도 의례국 서기실이 김정일 집무실이나 특각 또는 이동 중인 별장으로 보내는 직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한이 더 막강했다. 의례국 서기실이 김정일의 의중과 기분에 맞춰 제의서들을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 갖다 놓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간부 상호유착을 막으면서도 자기의 경호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례국 서기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다. 북한 노동당 문헌 필름자료들을 보면 김정일이 제의서 문건 더미 속에 파묻힌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전용일 뿐이다. 김정일은 단 한 장의 목차를 읽을 뿐이며 그 속에서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골라보는 정도였다. 운 좋게 김정일이 찾아본 문건들은 ‘친필비준’, ‘존함비준’이 되고 나머지는 ‘날짜비준’으로 자동 처리되어 버린다는 것이 고위층들의 제의서 상식이었다.

이런 국정운영의 개인주의로 인해 북한에는 많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992년경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의 초호화 200세대 아파트 입주사건이 바로 하나의 사례이다. 그 아파트 입주문제와 관련하여 당·군·외무성·대남공작부서들이 저마다 입주 제의서를 올렸는데 김정일이 동일하게 친필비준을 한 것이다. 입주 당일 그 제의서를 가진 부서들의 이사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당 조직지도부가 중재에 나섰다. 서로가 ‘친필비준’을 보여주며 소유권을 주장하자 결국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자필 내용들을 따지기로 했다. 김정일의 친필비준 내용 중 “당장 해결해주시오”가 최우선이었고, “빨리 해결해주시오”가 두 번째, “무조건 해결해주시오”는 언제든 해결만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다음 기회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김정일 개인의 비준 안에서 업무 추진과 평가를 받는 관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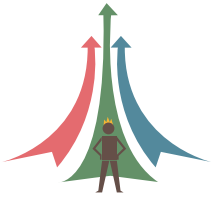
노동당 부서장들은 제의서 작성의 귀재들이다. 단 몇 글자의 제목에 내용이 집약되도록 그리고 명명백백한 체계구성과 강조점들이 한 두 장의 문건에 모두 반영되도록 글자 하나, 점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제의서 혼선을 피하고 김정일의 비준 편의를 위해 당 부서들마다 보고 날짜가 지정되어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를 강조하기 위해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의 ‘친필비준’에 해당되는 상위 비준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오늘날 김정은의 비준은 김정일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결심의 경험과 연륜, 권력의 자신감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간부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자문을 구해 사인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경험의 부재가 권력의 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간부들에게 책임의식과 권력공포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친필비준이 김정일 시대와 다르다고 보는 또 다른 근거로는 김정은의 결심을 반영하려면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김정은 주변에는 김정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것 같다. 현실정치를 경험하기 전에 비준제도라는 궁중정치, 이전의 기득권 틀에 묶여버린 것이다.

4

김정은 세습의 3대 악재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과 관련하여 3대조건, 즉 국가조건, 지도자조건, 주민조건을 비교하여 설명해볼까 한다.

우선 김정일 세습 당시의 국가조건에선 충분한 대외성이 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 동구권이라는 우방국 진영이다. 미·소 냉전 구도라는 안정된 국제정치 환경의 그늘 밑에서 북한은 자국 내 정치권력 일원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다음은 남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교적 우월했던 대내성이 있었다. 이런 상대적인 체제 자신감은 김일성 개인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세습권력도 결심할 수 있게 한 동기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봉건왕조에서 사회주의로 바로 이양된 역사적 폐쇄성의 조건이 가장 유리했다. 그 폐쇄조건이 있었기에 봉건유교관습의 연장선에서 김일성 신격화를 조작하여 세습정치도 정당화할 수 있

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에게는 그런 국가 충분조건들이 하나도 없다. 사회주의 동구권은 붕괴되었고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중국마저 개혁개방의 압박을 가하는 형편이다. 경제 또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주적’이라던 미국의 대북지원을 공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폐쇄성도 시장화로 거의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 외부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물건만이 아니라 정보도 함께 유통되는 새로운 환경, 여기에 국경을 초월하는 라디오, 컴퓨터, 휴대폰과 같은 과학의 현대화까지 더해져 이젠 북한도 반쯤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조건에 이어 지도자조건을 비교했을 때도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매우 열악하다. 김정일에게는 세습권력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선대 수령의 정치적 지위가 절대적이었다. 김일성의 후광으로 김정일은 자기의 존재와 위업을 조작하는 신격화 선전에도 별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가장 행운이었던 것은 김정일의 세습권력 훈련과정이 매우 길었다는 것이다. 그 충분한 시간 속에서 김정일은 권력의 속성을 하나하나 익혔고 나중엔 수령 권한을 무력화시킬 만큼 김정일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했다.

그런 김정일에 비하면 김정은은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불명예와 실패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고, 20대에 벌써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으로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급하게 쫓기는 처지였다. 그마저도 김정일의 사망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권력을 받은 것일 뿐 실제적 권력승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의 권력을 빼앗아본 경험이 있었던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최측근들의 권력불안과 경계심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김정일은 죽기 전까지도 북한의 모든 사회 질서와 체계를 집중시킨 절대적인 당 권력을 김정은에게 넘겨주지 않은 점이다. 선군정치의 나라로서 군사적 행정업무만을 인정해주었을 뿐인데 사실 그 지위란 것도 당 권력의 지도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다만 김정일이 김정은을 확실하게 밀어준 것이 있다면 신격화 만들기인데 이 또한 가당치도 않았다. 김일성·김정일의 경우 북한의 과거와 연계시켜 역사왜곡형 신격화 조작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의 20대 김정은의 행복한 과거들은 북한 주민들에겐 대량 아사하던 고난의 행군 시대였다. 결국 현재형 신격화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엉망이어서 딱히 어디에 가져다 붙일 말도 없다. 김정은의 ‘천재적 군사지휘로 적들의 천안함을 공격하든, 연평도를 포격하든’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의 봉쇄와 비난뿐이어서 효과도 별로 신통치가 않았다. 국가조건도 지도자조건도 모두 부적합한 김정은인 셈인 것이다.

주민조건은 더 혹독하다. 김정일 시대에는 이념가치만을 알았던 주민들이었고 안정된 배급체계에 의해 명령과 복종의 관통구

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한 단면적 사회질서 속에서 조직연대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주민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주민들은 완전히 다르다. 이념가치가 아닌 물질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명령과 복종이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질서에 더 적응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탈하여 시장에서 개인연대감으로 생존하는, 비로소 수령주체가 아닌 개인주체의 주민인 것이다. 결국 국가조건, 지도자조건, 주민조건을 김정일과 비교해보았을 때 김정은은 3대 악재를 계승한 처지이다.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어두운 밤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밤이 낮보다 더 좋았다고 말하는 탈북자도 있다. 노동에 시달리는 낮보다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들의 소원은 단지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그 아침일 것이다.”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97-01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